

< 앞면에서 계속 >

“주기도문이 안 되면 헨델의 메시아 등 기독교 중세음악은 다 안 되는 것이다.”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월턴 이사장은 “졸업식 때 주기도문 합창을 보고 우려했다.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발각되었다.”며 “이 결정은 내 견해가 아니라 대법원 결정으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이다.”라고 해명했다. 결국 졸업식 때 주기도문 합창을 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 졸업식은 시작되었고 졸업생 대표 조나단 몽고메리의 인사말 순서가 됐다.

### 졸업생 대표가 인사말을 대신 한 것은...

몽고메리는 잠간 침묵하더니 양손을 높이 들어올렸다. 순간 앉아있던 졸업생 일동이 기립하여 한 목소리로 주기도문을 암송하기 시작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뤄진 같이 땅에서도 이뤄지이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학교 관계자들은 어리둥절했고 스탠드에 서있던 하객들은 학생들과 함께 큰 소리로 ‘주기도문’을 암송했다. 학생들이 “아멘!”하며 ‘주기도문’ 암송을 끝마치자 하객들은 박수와 환호로 졸업생들의 용기를 응원했다.

졸업생들은 무신론단체의 위협으로 학교의 오랜 전통인 ‘주기도문’ 합창을 졸업식에서 금지한 학교 결정에 반발해 합창 대신 암송하기로 사전에 약속했던 것이다. 학부모들은 이 같이 신앙의 자유를 지키려는 학생들의 행동에 크게 감동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오늘날 미국이 이렇게까지 된 현실에 책임감을 느끼며 또한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고 눈물을 흘렸다. (\*) 출처 / KAmerican Post 2016.5.28.

### < 문서선교헌금 2016년 6월 >

윤해규 (새벽이슬교회) 김삼도(가주평강교회) 김상정(얼바인한인교회) 한성윤(나성 남포교회)  
송희영 정지호 김낙순 명종남 조남정 오희식

www.thetruthlighthouse.org



개혁신앙 < 44호 > 발행인 정은표 발행일 2016년 7월 1일  
발행처 월간 개혁신앙 idaho\_jesus@hotmail.com  
1816 Crested Bird Irvine, CA 92620 (208)921-5336

# 개혁신앙

REFORMED FAITH

Then you wi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will set you free.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 주님의 산상설교 너의에게 복이 있나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마 5:1-10)

## 고등학교 졸업식장에 주기도가 울려 퍼지다



### ‘주기도’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나라

오하이오의 작은 도시 이스트 리버풀에 위치한 이스트 리버풀 고등학교는 지난 70년 동안 졸업식 때마다 ‘주기도문’(Lord’s Prayer)을 합창단이 불러오는 전통을 갖고 있다. 올해도 졸업식을 준비하며 담당 음악교사는 졸업생으로 구성된 합창단과 함께 주기도문 합창을 열심히 연습했다.

하지만 지난 5월 초 이 학교는 위스콘신에 위치한 미국 최대 무신론단체인 ‘Freedom from Religious Foundation’으로부터 경고의 편지를 받았다. 공립학교 졸업식에서 ‘주기도문’을 합창단이 부르는 것은 공공장소에서 정교(政敎) 분리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중단하라는 내용이었다. 지난해 이 학교의 부모가 졸업식에서 주기도문이 합창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 단체에 제보하면서 이번에 경고 편지가 날아온 온 것이다.

학교 이사회는 고심하다 이 단체가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다는 우려로 이번 졸업식에서 주기도문 합창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래리 월턴 이사장은 “우리는 이 단체와 소송할 돈이 없다. 소송을 위해 변호사에 돈을 쓰기보다 교사를 더 고용하는 것이 낫다.”며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반발이 컸다. 이 학교에서 18년 동안 음악교사로 활동하며 매년 졸업식 때 주기도문 합창을 지도해오던 교사 리사 엔싱어는 < 뒷면에 계속 >